부처님 오심, 기쁨 그 너머의 성찰을

현불논단



석길암 교수
동국대 WISE캠퍼스 불교학부

서구사회에서 불교는 핫(hot)하다. 특히 탈종교 시대를 맞이하면서 기성종교의 유력한 대안으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불교라고도 말해진다. 탈종교화 현상은 기성종교의 제도적 권위 안에서 이탈하는 이들이 급증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나라도 종교인구조사에서 무종교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60%를 넘었다는 통계가 거론된다.

그런 상황에서 서구사회 내부에서 불교가 다양한 양상으로 수용되고, 종교 분야에서도 불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기성 종교가 바라보던 세계관보다는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력에 압도된다. 이것이 기성종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따르는데 부정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는 원인으로 작동하고, 기성종교로부터의 이탈 현상이 가속화하게 된다.

그렇지만 과학이 삶의 모든 부분을 메꾸어 주지는 않는다. 자연스레 과학이 제시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부합하면서도, 삶의 나머지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가치체계를 기대하게 된다. 불교는 그런 점에서 서구 세계에서 탈종교화 시대의 대안체계로 급속히 부각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이 멀지 않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가르침을 전하신 뜻을 되새기고, 동시에 우리는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날이다. 단순히 기뻐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날이라는 말이다. 우리의 삶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하는 방향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탈종교시대 서구에서 각광받는 불교
미래 기다리기보다 설계하는 불교를

부처님은 정각을 성취하신 후 단 45년 만에, 당신의 가르침으로 인도 세계를 뒤덮었다.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인도의 기성종교와 오래된 문화 전통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고 또 대체되었다. 아마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넓은 지역에서 그렇게 많은 귀의자를 확보했던 가르침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은 늘 고민의 대상이다. 좋은 가치관, 좋은 세계관을 전하는 가르침은 적지 않다. 하지만 그것이 압도적인 확산력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이해되고, 생활에 적용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것이어야만 그만한 확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불자들의 신행과 생활이 다시 고민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스님들과 교단의 노력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는 가르침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그렇게 쉽고 명료하고 구체적인 가르침으로서 불교를 만나고 있는가 하는 고민이 우리 불자 누구나의 화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그것을 재촉하는 한마디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

"부처님 법 전합시다!" 전법을 외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소중함을 일깨우는 이구동성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부처님 오신 의미가 우리 스스로에게 와닿는 한마디로 새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구동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불교인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불교, 불교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 내일이 멀지 않아야 하는 5월, 부처님오신날이다.

지방이 살아야 불교도 산다

세간과 출세간



박수호 교수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구문제이다. 한국 사회의 인구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 사회는 2000년대 이후 '인구절벽'이라는 초유의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동시에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지방소멸'이라는 위기 담론으로 포착하고 있다.

사실 인구감소나 지방소멸 등과 같은 사회문제는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교계도 이러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구 위기는 한국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2005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정점을 찍은 불교 인구는 이후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불교 인구의 감소는 출가자 감소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사찰의 유지 및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며,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을 축소하는 핵심 요인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불교의 존재 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점에서 결국 불교의 쇠퇴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지방소멸은 지방의 인구가 대도시나 인근 중핵 도시 등으로 유출되면서 해당 지역의 인구 공동화(人口 空洞化)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 인구의 감소는 전국적 차원의 불교 인구감소가 초래하는 문제를 훨씬 심화시켜 지역 불교의 위기로 나타난다. 지방소멸의 위험에 당면하게 되었다는 점은 폐사를 걱정할 만한 상황이 농어촌을 넘어서 수도권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으로 확산했음을 의미한다.

지방인구 줄며 불교인구 감소 가속
지역 삶의 질 향상, 불교도 나서야

지방소멸 담론이 급속히 퍼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다양하게 모색되었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재편하며, 교육 및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만의 매력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제로 지역에 살지 않아도 장기간에 걸쳐 그 지역에 다양하게 참여하는 '관계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고 있다.

지방소멸과 그에 준하는 위기를 마주한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지방소멸 위기의 근본적인 해법은 지방을 수도권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지방이 살아나야 지역 불교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불교가 해야 할 일은 사찰이 위치한 해당 지역을 삶의 질이 높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다.

불교가 축적해 온 풍성한 문화적 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적 매력을 발산하게 해야 한다. 사찰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 되어 주민들과 소통하고, 타지에 머물러 있는 관계 인구들이 지역사회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들이 지역주민과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불교와 사찰이 지역사회의 동반자이자 좋은 이웃이라는 사회적 인정을 얻을 때 지역 불교가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社 說

청년 전법에 지속적 관심을

최근 불교가 젊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4월 28일 봉은사에서는 동국대·서울대·이화여대 등 수도권 9개 대학, 120명 대학생들이 참여한 '대학생찬불음악축제'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청년음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불교와 한국 전통 예술이 어우러진 공연을 펼치며 청년 전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4월 29일 조계사에서는 대학생 불자들의 단기출가 입재식이 봉행됐다. 남행자 4명, 여행자 5명은 5월 4일까지 단기출가를 통해 출가 정신을 배웠다. 4월 30일에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108배 정진을 함께 하기도 했다.

조계종립 동국대도 청년·대학생 전법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동국대 건학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아 열린 건학위 최고·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 돈관 스님은 3000여 대학생 불자 양성을 발원했다. 이를 위해 서울캠퍼스 14대 단과대학과 WISE캠퍼스 6개 단과대학에 불교동아리 창립이 추진되고 있다. 당장 연등회 제등행렬에 2000여 동국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확인됐듯이 MZ세대와 알파세대에게 불교는 소위 '힙한 종교'로 통한다. 이는 높았던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가 단순히 1회성 유행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세대 유행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현 세대의 니즈를 파악해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트렌드를 읽어내는 눈을 키우는 것도 불교계가 할 일이다. 무엇보다 '청년 전법'에 진심인 지금의 원력이 꾸준히 지속되길 바란다.

도난 불상 무주상보시 日사례 '귀감'

일본 불교에도 불상이나 불화 등의 도난 사례가 있나보다. 일본 나라현 가츠라기시 다이마데라(當麻寺) 산내암자인 넨부츠인(念仏院)은 지난해 8~9월 경 봉안된 아미타여래좌상과 다문천왕상 2구를 도난당했다. 특히 아미타여래좌상은 13세기에 조성된 수작이었다고 한다.

올해 1월 아미타여래불상이 인터넷 옥션에 출품됐고 이를 인지한 현지 경찰은 출품자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출품자는 80대 남성이 매각을 요청했음을 진술했고, 결국 80대 노인이 범인임이 밝혀졌다.

문제는 해당 불상이 이미 낙찰돼 불상 애호가 호키 에이타 씨의 소유가 된 것이었다. 하지만, 도난된 불상임을 안 호키 씨는 조건 없이 불상을 넨부츠인에 반환했다. "워낙 수작이라 떠나보내기는 아쉽지만, 본래 사찰로 돌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난품인지 모르고 구입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선의취득'은 도난 성보문화재 문제에 있어 뜨거운 논쟁거리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사례는 귀감이 될 만하다. 〈금강경〉에는 '무주상보시'에 대한 가르침이 나온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생각 없이 온전한 자비심으로 베푸는 것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자비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찬찬히 되짚어 볼만 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총괄국장 : 박재완 편집인 : 신중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8년(2024) 5월 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8년(2024) 5월 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해불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010-6219-4757

불기 2568년(2024) 5월 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